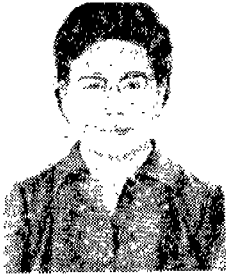


# 한국간호사와 운명을 같이한 「대한간호」

홍 신 영 (본회 증경회장)



대한간호 제100호 출간을 맞이하여 치사를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만가운 마음에서 선뜻 승락했다.

대한간호가 오늘날 100호를 기념하게 된 이탄에는 무수한 시련의 역사가 숨어 있어 지난날들을 회고하게 되어 감개무량하기 때문이다. 우선 대한간호 100호 기념을 맞음은 대한간호협회의 크나큰 행사이며 우리 모든 회원의 기쁨이므로 진심으로 경하하여 마지 않는다.

대한간호는 1925년 창간이래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고 본다. 조창기에는 기관지발행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자원, 재료 및 인재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더 큰 어려움은 일제하에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그랬듯이 간호사업분야에서도 일제의 탄압이 가해졌으며 특히 「지나사변」과 「대동아 전쟁」으로 일제의 탄압은 점점 더 심해져 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우리나라의 언어, 사상, 문화에는 말할수 없는 제압을 주어 간행물을 제대로 출간하지 못하게 되었던 쓰라림도 겪었다. 그후 해방을 맞아 모든 분위기가 푸르익어 다시 대한간호가 출간되었는데 뜻하지 않은 6.25사변으로 두수한 난관이 겹쳤었다. 그러나 간호사업에는 기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또 회원들의 끈질긴 노력과 인내로 오늘날 대한간호 100호기념을 하게 된것이다.

이러한 경사를 맞이하여 선인들이 이루어 우리에게 준 위업의 전후사실을 후진들에게 알리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어 어떻게 이전일이 이루어졌는지 그 경위를 써서 도움이 되고자 한다.

「대한간호」란 이름이 처음 생긴것은 해방을 맞아 유엔군이 진주했고 미군정시대를 거쳐 대한민국이 수립되므로써 국호를 따라 우리조직체의 이름과 더불어 기관지 「조선간호부회보」가 「대한간호」로 개칭되어 출판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대한간호의 모체가 되는 조선간호부회보에 대하여 그 역사를 얘기하지 않고 지나칠 수는 없다고 본다. 조선간호부회보가 최초 생기기까지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뿌리가 무척 깊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서구식 간호가 시작된것은 지금부터 88년전(1891) Emily Heádcote가 영국 성공회선교부에서 봉사하기 위해 첫번으로 우리나라에 오게된 이후 영·미·호주등지에서 많은 선교사 간호원들이 이땅에 들어오게 되면서 간호교육도 시작이 되었으며 차차 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조직체구성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1908년에 재선졸업간호부회가 생기게 되었고(1911년에 재선서양출업간호부회로 개칭하다) 1909년에 평양에서 조선간호부회보 발간에 대한 계획을 하게 되었다. 이때 회지의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1. 환자를 위하여 철두철미하게 간호할만한 재능과 열성을 증진케 한다.

2. 일반민중이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을 피할수 있으며 건강을 보전할 수 있는 위생학의 가능성을 표명한다.

3. 우리사업을 장려하고 고상한 이상을 가지고 그 이상을 향하여 전진한다.

4. 기쁨과 즐거움의 최고의 봉사를 할 수 있게 한다.

5. 원대하고 긴요한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도록 한다.

그리고 용어는 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도록 하며 년 2—4회를 발간하라고 계획하였다.

햇수가 거듭하는 동안 우리나라 졸업간호원의 수도 늘어나 조직체를 가질만 하게 되자 서양조선 간호원연합체를 조직하면서 또다시 기관지발간에 대한 논의가 거듭되어 오다가 1925년 드디어 「조선간호부회보」가 탄생하게 된것이다. 이때 이미 년 4회 계절별로 출판하기로 하여 1934년까지 계속 출판되었다가 일제의 끊임없는 언론 탄압으로 말미암아 중단할수 밖에 없었다. 그후 해방을 맞이하여 다시 대한간호로 햇빛을 보게 된것이다.

이와같이 대한간호는 긴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두 세번씩 끊기었다 이어지는 파탄속에서도 묵은 뿌리에서 새순이 돋아 오늘에 이르기까지 간호계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해왔다고 하겠다.

이제 간호사업이 우리나라에서 본 궤도에 오른지도 20여성상이 되었다. 그동안 간호사업은 많은 역경을 거쳐 이제는 일반국민과 사회에서 인정받는 국가의 중요한 사업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으며 특히 간호학이 의학사회속에 들어오면서부터 급격히 발전해온 학적발전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국민보건을 위하여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전문지라는 것은 그 분야의 사업과 업적에 관한 기사와 보고등을 기재하므로써 그분야의 사업계획이나 업적을 널리 알려져 그분야 지식을 더할 뿐 아니라 자극과 격려를 주어서 활발한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대한간호는 간호의 질적 양적인면에 있어서 보강해야 할 신지식과 간호계의 모든 소식을 널리 알려주어 잡지로서의 흥미도 잃지 않도록 해야할 줄 안다.

이번 대한간호 100호 기념을 계기로 우선 내용의 충실화와 발행횟수의 증가를 추구하고 싶다.

지금부터 50여년전 「조선간호부회보」창간대부터 년 4회 발행이었고, 1960년대부터 격월간으로 년 6회씩 발행되었는데 1980년대가 가까운 지금까지 격월간으로 계속되는 것은 그동안의 간호계의 발전상에 비하면 무척 빈약한 발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현재에 와서 독자의 구독력 저하상태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사업에 주는 큰 경중인줄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최근 간협신보를 신간하고 있지만 전문지로서의 「대한간호」는 보다 차원을 높여야 할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종전과 같은 단일한 편집과 격월간행물로서는 3만5천여회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지 않을까 한다. 더욱이 현대사회는 변천과정이나 방향이 극히 광범위하고 복잡하며 매스컴시설을 통하여 문화교류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므로 전문지로서의 오늘날의 대한간호의 사명은 최초의 대한간호의 특적이었던 「철두철미한 간호」를 할 수 있는 촉진체로서 변천하는 현시대에 맞는 커다란 역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한간호가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운 충실한 내용이 있어야 하겠고 회원모두는 보다 높은 의견의 제시와 성의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바라기는 앞으로는 대한간호가 중단함이 없이 참신한 내용과 연수감소가 아닌 증가, 격월간이 아닌 월간으로서 출범을 기대하는 바이다.